

耳溪 洪良浩의 北塞文學에 대한 一考察

—「朔方風謠」와 「北塞雜謠」를 중심으로—

成 範 重*

I. 머리말

역사상 어느 한 시대의 문학은 그 시대가 처한 역사적 흐름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문학사도 그 나라 역사의 개별사 중의 하나로서 전체 문화사의 흐름과 방향을 달리 해서는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漢詩에는 이전의 한시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조선적인 것에 대한 자각과 우리의 것에 대한 애정이 담긴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음은 근래의 연구 성과에 의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¹⁾ 燕岩의 「朝鮮風」, 茶山의 「朝鮮詩」, 文無子 李鉉의 《農謳》와 같은 여류감정의 수용 뿐만 아니라 詠史樂府와 竹枝詞類, 우리 詩歌의 漢譯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우리의 것에 대한 자각과 애정을 보이는 수많은 漢詩 작품들이 창작되어 이 시기 漢詩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 문인들의 전유물이었던 漢詩 창작에 委巷文人들이 대거 참가하여 풍성한 문학 유산을 남기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본고에서 다룬 耳溪 洪良浩(1724~1802)의 「朔方風謠」와 「北塞雜謠」도 바로 이러한 「조선풍」·「조선시」의 구체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은 북새라는 특정 지방의 환경, 전설, 주민들의 생활상 등

* 국어국문학과 조교

1) 李東暎,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攪頭”, 韓國漢文學研究 卷3-4집(韓國漢文學研究會, 1979) 참조.

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서 鄉土文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북새로 가는 途中의 견문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紀行文學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삭방풍요」 중의 「북정」을 기행 가사의 하나인 晦隱 李溶의 「北征歌」와 비교하여 漢詩와 가사 작품이 동일한 路程을 어떻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려 한다.

이제는 1747년(영조 23) 진사, 1752년 庭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1774년에는 登俊試에 丙科로 급제하여 1799년에는 이조판서로 兩館大提學까지 겸하였고, 1801년에는 判中樞府事도 겸했던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양반관료였다. 두 차례에 걸쳐 청나라에 다녀와 귀국 후에는 考證學의 발전에도 기여했던 인물이었다. 宦路도 비교적 순탄하였으나 1777년(정조 1)에는 洪國榮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그 횡포가 심해지자 慶興府使에 제수되어 北塞에 3년동안 재임한 적이 있었으니,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은 이때에 제작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불우했던 시기의 것들로서 황량한 북새의 환경과 어울려 전반적으로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또 이제는 小瀛 洪聖幾, 芝溪 宋德文, 屏樵 洪載汝, 震澤 申文初, 羅子晦 등과 詩社를 결성하여 활동한 바 있고, 그가 淸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지은 詩인 「燕雲紀行」에 대한 題評이 남아 있으나,²⁾ 본고에서는 論及하지 않는다.

文集으로는 筆寫本 54卷과, 活字本으로 《耳溪集》 38卷·《耳溪外集》 12卷의 2종이 있으나 活字本과 필사본은 그 편차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 즉 필사본에는 실렸으나 활자본에는 실리지 않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그대로 간행하기 위해 필사본으로 정리하였으나 나중에 활자로 간행할 때 그 중 일부의 내용을 탈루시키고, 편차도 새로 잡은 것

2) 洪良浩, 耳溪洪良浩全書 上(民族文化社, 影印本, 1982), pp.128~130. (이하 全書 上으로 略稱함).

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影印된 필사본을 자료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활자본을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시키기로 한다.

II. 「朔方風謠」의 경우

1. 작품 개관

「朔方風謠」는 耳溪가 敬肅부사로 黜補되어 간 1777년(正祖 1) 겨울부터 1779년 음력 2월에 解官되어 고향인 耳溪에 돌아오기까지의 旅程과 그곳에서의 전문·감회를 수록한 55수(활자본에는 47수)로 이루어져 있다. 詩體에 따라 분류되지 않고, 제작순으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실의에 빠져 있다가 敬肅부사에 제수되어 臨地까지 가는 도중에 전문한 내용에 자신의 감회를 담은 시들로서 「北征」에서 「莫斬鷄」에 이르는 17수인데, 이것들은 내용으로 보아 크게 ① 敬肅부사로 떠나게 된 心境 및 부임 도중에 마주치게 된 山川풍경에 대한 감회를 읊은 것과, ② 관북지방과 관계된 인물의 유적지나 史跡을 읊은 것으로 대별된다. ①은 「北征」「鐵嶺高」「磨天嶺」「鬼門關」등 몇 작품에 지나지 않으나 北關 異鄉으로 가는 데 대한 참담한 심회가 반영되고 있다. ②는 작품 수에 있어서 절대다수를 차지하지만 「侍中墓」「臨溟大撻歌」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모두 太祖 李成桂의 行迹과 관련된 것들로서 작가의 의식과는 상관없는 忠에 대한 觀念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는 이제가 敬肅에 도착하여 解官報를 받을 때까지 敬肅부사로 재임하면서 그곳의 풍속과 감회를 읊은 것들로서 「孔州謠三疊」에서 「皇帝塚詞」에 이르는 24수의 작품이다. 여기에도 「射龍臺」「幹東歌」「赤鳥歌」등 이태조의 유적에 대한 시편, 宋나라 황제의 묘를 읊은 「皇帝塚詞」, 送詩인 「盛京歌送徐端揆命善赴瀋陽」과 같은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北塞의 특이한 풍속, 北塞에 홀로 떨어진 데

대한 고독감과 嘆老, 임금에 대한 사모감, 황량한 복새생활 가운데서도 찾아지는 소박한 즐거움, 번방을 수비하는 군졸들의 어려움 등을 유장한 필치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변새문학이라 할 만한 소지를 찾을 수 있다.

세재는 경흥부사에서 解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耳溪로 돌아오는 도중에 읊은 시들로서 「二月間解官報」에서 「到耳溪」까지의 14수이다. 이 작품들은 북새로 가는 도중이나, 북새에 있으면서 제작된 시들과는 달리 음울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밝고 활기찬 기운이 넘치는 것들이다. 특히 이 작품들은 그 詩體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앞의 두 단계의 작품들은 전혀 근체시(율시, 절귀) 형식을 취하지 않은 古體의 長詩임에 비하여, 여기에 실린 것들은 모두 근체시 형식을 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³⁾

이로 본다면, 耳溪의 경우 고체시와 근체시 형식을 사용함에 있어 선택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단계의 시편들에서 참담한 감회를 드러내거나 선조들의 사적울 읊을 때, 정제된 4句나 8句의 근체시 형식으로서 그 내용을 담기 어려웠을 것이고, 표현 효과의 면에 있어서도 환경과 결부된 유장한 사연을 표현하는데 단일 내용을 담기에 적합한 근체시의 형식을 가지고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반대로 세재 단계의 시편에서 艱難을 벗어나 귀향하는 홀가분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데는 단일 내용을 단일한 필치로 그려낼 수 있는 근체시 형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마천령을 넘으며 지은 시인데도 첫째 단계에 속하는 것은 고체시 형식을, 세재 단계에 속하는 것은 근체시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이 가운데 「六歌」는 七言律詩 6首로 된 것이지만, 이것들은 자기 하나의 단편적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并序에서 “經年絕塞 不勝家國之戀 舍弟寄示古詩五十韻 語多感觸 擬老杜七歌 作六章以答之”(全書上, p.95)라고 하여 擬古作임을 밝히고 있다.

다음에는 위의 작품들 가운데서 이제의 개인적 심회가 배제되고 단순히 선인들의 사적이나 전설이 어린 유물을 읊은 작품과 解官報를 받은 후 귀가하면서 제작한 작품들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을 대상으로 번세의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느낀 耳溪의 인간적 갈등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北征」을 들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삭방풍요」 전체의 總詞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結構를 觀遊歌辭⁴⁾인 「北征歌」와 대비해 볼 수 있다. 가사작품이 한글로 쓰여진 데 비해, 이 작품은 漢詩作品이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同時期에 같은 北塞에서 武夫로 벼슬살이를 한 晦隱 李溶의 「북정가」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耳溪의 북새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급하지 않고 다음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북새로 가는 여정의 험난함을 읊은 것으로는 「鐵嶺高」「磨天嶺」「鬼門關」 등이 있다. 「철령고」는 그 형식이 독특한데, “철령은 높다(鐵嶺高)”라는 말이 반복되고, 이 말이 반복되는 곳을 경계로 네 단락으로 나뉜다. 즉 ① 철령의 험준한 산세, ② 과거 여기에 말갈족이 소굴을 정한 시기의 生靈의 비참상, ③ 태조가 朔方에서 일어나 삼한을 평정한 사실과 거기에 대한 백성들의 환호, ④ 그 후 백성들의 태평한 생활상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철령은 북관으로 통하는 길목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면서 지은 허다한 題詠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개의 험난함을 탄식하거나 남북이 나뉘는 관문, 또는 世道の 험함에 대한 비유⁵⁾ 등으로 사용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여기서 백성들의 태평성세를 회구하는 방향으로 그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

4) 이 용어는 崔康賢, 韓國紀行文學研究(一志社, 1982), p.168에서 따온 것이다.

5) 曹友仁, 「出塞曲」, 原文歌辭選(국어국문학회편, 大提閣, 1976), p.236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있다. “巖岩 鐵嶺을 험튼 말 전혀 마오/世道를 보거든 平地가 너기노라.”

고, 또 그 형식에 있어 長短句를 취하여 들쭉날쭉하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변세의 수령으로 좌천되어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시를 쓸 수 있다는 데서 우리는 이제의 牧民官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그 태도를 읽을 수 있다. 「마천령」 「귀문관」 또한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험준한 지세를 읊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새로 가는 데 대한 참담한 심회가 바탕에 깔려 있다.

이제가 경흥에 도착한 후의 작품으로는 우선 「孔州謠三疊」을 들 수 있다. 공주는 경원과 경흥지방의 옛이름으로⁶⁾ 여기에서는 경흥을 지칭한다. 제 1 장은 풍속과 토산물, 생활방식의 소개, 제 2 장은 자연경관과 지리적 조건의 소개, 제 3 장은 주민들이 王化를 입어 평화로이 살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북새의 황막한 환경 및 끊임없는 野人의 침입 속에 시달리다가 세종의 육진개척 이후 우리의 국토에 편입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공주지방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이제가 이 지방의 목민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재임기간 중에 실현하고자 하는 꿈의 표현일 것이니, 이것은 제 3 장의 첫 머리에 있는 “남들은 공주가 나쁘다지만 / 내가 보기에 공주는 즐거운 곳 / 누가 먼 荒塞라 했나 / 나는 三화가 넓음을 사랑하노라.”⁷⁾라는 귀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朔風行」은 북새지방에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西水羅日出歌」는 서수라 주변의 자연경관을, 「夏雪歌」와 「七月霜」은 여름에도 난데없이 내리는 눈과 서리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느낀 감회를 나타낸 시이다. 이제 자신의 감회도 물론 작품에 반영시키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새에 존재하는 자연현상이나 풍토적인 것으로 인한 재해 속에서 고난에 시달리는 북새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드러

6)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Ⅴ, 고전국역총서 45(민족문화추진회, 1978), p. 288, p.326 참조.

7) “人言孔州惡 我見孔州樂 孰謂荒塞遠 我愛王化博(全書 上, p.95).

내는 데 중점이 놓인 작품들이다. 목민관의 입장이라기보다 한 개인으로서 열악한 자연 환경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고 느낀 인간 본연의 자세에 초점이 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이 북새인 전체를 두고 지은 시편들이라 한다면, 「戍卒怨」은 변경 수비를 위해 전국에서 징발되어 온 군졸들의 고난을 그린 시이다.

「六歌」는 舍弟가 보내온 시를 보고 이항에 홀로 떨어진 나그네의 외로움을 노래한 시이다. 제 1수 :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제 2수 : 군왕을 옆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 제 3수 : 舍弟와 더불어 우애를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 제 4수 : 손자의 재물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제 5수 : 子侄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 제 6수 : 자신이 冠山에 幽居하는 淸閑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제 2수는 주자학적 통치질서권 내에 속하는 이계의 입장에서 표명할 수밖에 없는 덕목의 하나이므로⁸⁾ 논의로 친다면, 나머지 5수는 인간미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노모를 모신 가장으로서 가족 하나하나를 염려하는 애타한 마음씨가 애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적 심회를 표현한 작품으로는 「白雲白」과 「塞翁歌」가 있다. 「백운백」이 북새에서 외로이 늙어가는 자신에 대한 비장감과 탄식을 표현한 작품이라면, 「새옹가」는 塞翁之馬의 새옹을 끌어와 현재의 새옹인 자신과 대비시킴으로써 현재의 자신이 처한 위치가 결코 남에게 지탄을 받거나 동정을 받을 위치가 아님을 논변한 작품이다. 불모의 땅에서 덕의를 선양하려 하지만 백성들이 잘 순화하지 않을 뿐더러, 또 잘 먹지도 못하는 늙은 몸이 朔風을 빼어 살가죽에 비늘이 일기도 하지만, 영화롭다고 하여 기뻐할 것도 없고 궁곤하다고 하여 얼굴 찡그릴 것도 없는 세상 이치 속에서 자신은 자신의 진실됨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군왕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지

8) 「삭방풍요」에는 이러한 忠君의 念을 담은 것으로 「思美人曲」과 「端午篇」이 있다.

나 앓을까 하는 것이지, 일신의 夷險 따위는 운위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⁹⁾ 이러한 생각은 「塞上吟」의 연장선 상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새상음」에는 복세의 열악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自樂하는 여유있는 삶의 태도가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朔方風謠」는 이제가 경흥부사로 변세에 나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변방 수비의 책임을 다하고 다시 귀경하기까지의 노정과 복세생활 가운데서 견문한 사실과 그 지방의 풍속,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복세인들의 생활상, 먼 이향에 홀로 떨어진 이방인의 심회 등을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수령이라고 하여 백성의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의 위엄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지방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 양심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2. 「北征」과 「北征歌」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北征」은 「朔方風謠」의 總詞格에 해당하는 작품으로서 五言 340句 1,700字에 달하는 작품이다. 「北征歌」는 晦隱 李溶(생몰년 미상, 영·정조시인)의 《適宜》에 수록된 觀遊歌辭로서 130行으로 된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창작 년대가 자기 1777년과 1776년으로 거의 같은 뿐만 아니라 北征하게 된 動機가 이제는 경흥부사로, 회은은 武夫로 다같이 奉行王命이었다는 점, 또 그 노정이 다같이 서울에서 복관의 변세였다는 점에서 상호 비교 고찰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두 작품 모두 4단계 구성으로 조선 시대 기행가사의 유형구조의 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제 1 단계 : 출발 동기 및 行裝, 제 2 단계 : 목적지까지의 노정과 느낌, 제 3 단계 :

9) (前略) 地是不毛衣則皮 民如鹿食猩猩言 宜揚德意不遑處 俗陋政拙苦難馴 官廚無肉飯如沙 朔風透骨肌生鱗 知我者憫我 不知我者猶我嘆 憫我者與嘆我者 其於不知理則均 蕉日橋酸皆有性 蛇蠱蛙虺詎由人 君不見大易損益卦 又不聞 莊叟齊物論 榮兮不必喜 困兮不足嘆 況復造物勞我形 我則一視全吾眞 却笑 古之塞翁未見道 猶將得喪較紛紜 但恐 主恩未報遽將及 一身夷險安足云 嗚呼燕子銜泥何由修廣厦 斂人滴淚何以補滄津(「塞翁歌」, 全書 上, p.99).

목적지에서의 구경과 삶의 느낌, 제 4 단계 : 결사라는 틀¹⁰⁾을 깨뜨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 따라 작품을 비교, 분석할 수도 있으나 제 3 단계와 제 4 단계는 다같이 작자의 심회와 관련되고 또 작품을 마무리짓는 최종 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여기에서는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① 出發動機 및 行裝

여행의 출발 동기 및 행장에 관한 부분은 관북지방 관유가사인 「北征歌」나 「出塞曲」(曹友仁作, 1617년경)의 경우, 왕명에 의해 등정하게 되었다는 점과 武官으로서의 감회가 피력된 짙막한 도입부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北方 二十餘州에 鏡城이 門戶러니 / 治兵 牧民을 날을 맞겨 보내시니 / 罔極
 ्ह 聖恩이야 감플일이 어러웨라 / 書生事業은 翰墨인가 너기더니 / 白首臨邊이
 진실노 意外로다¹¹⁾

내본더 悠悠者로 百年을 放蕩하러 / 風塵에 쫓친막대 곳곳이 집퍼세라 / 山水
 에 다흐눈이 塞外에 여단말가 / 滔滔흐 눈흔興이 千里志를 즈아내니 / 長纓을 講
 하리라 畫筆을 더져스라 / 儒冠을 벗곤戎衣 끼무어시 快하더니 / 行裝을 點檢하
 니 遠遊篇이 새로워라(1-7)¹²⁾

이런 점은 관서지방이나 관동지방의 관유가사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왕명을 봉행하여 臨地로 출발하게 된 동기가 간략히 소개되는 정도이다.

關西 名勝地에 王命으로 보닉실서 / 行裝을 다사리니 칼하는 써이로다¹³⁾

江湖에 病이 집퍼 竹林의 누엇더니 /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맞더시니 / 어와 聖

10) 崔康賢, 앞의 책, p.15의 도표 참조.

11) 曹友仁, 「出塞曲」, 앞의 책, p.235.

12) 李 溶, 適宜(국립도서관본) 소제 「北征歌」(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북경가」의 行數 표시로 대신함).

13) 白光弘, 「關西別曲」, 原文歌辭選, p.32.

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¹⁴⁾

그러나 「北征」에 있어서는 사정이 다르다. 「북정」은 이 부분에서 보다 절실한 감회가 토로되는데, 우선 여기에는 이제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수반되고 있다.

我本愚而顛	나는 본래 어리석어
學道迷方向	도를 배움에 방향이 혼미했으나
事君思純白	임금을 섬김에는 순백함을 생각하고
持心勉貞亮	마음가짐은 貞亮함에 힘썼네
非才托盛世	하찮은 재주로 盛世에 의탁하여
外內多騁馳	내외로 드날린 게 많았으나
信已不量人	진실로 사람을 헤아리지 못해
如警行無相	마치 장님인 양 행함에 보는 것이 없었네
冥撻理顯隨	그윽히 이치를 캐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嫌疑起嬖誘	혐의를 품어 비방을 일으키기도 했네
人言竟三至	남의 말이 삼세번 들리니
慈母猶惓惓	자애로운 어머니마저 오히려 창황해 했네
郎金敢自卞	郎금은 감히 自卞코자 하나
橫玉嗟已喪	합 속의 구슬은 이미 잃어 버렸네(1---14) ¹⁵⁾

라고 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政敵을 만들게 된 과정을 서술한 다음, 새로 등극한 正祖의 王化를 칭송하고 있다(15---22). 이어서 반성하는 자세로

皇穹豈私我	하늘이 어찌 내게 사사로울까
王道本無黨	왕도에는 본래 파당됨이 없는 것인데
矢心期酬報	마음 속으로 갚을 것을 기약하였고
沒齒無恨快	죽을 때까지 원한은 없네
屏身歸蓬廬	몸을 가리고 蓬廬에 돌아와서
泣愆思艾創	지난 허물을 뉘우치며 艾創을 생각했네

14) 鄭 激, 『關東別曲』, 위의 책, p.110.

15) 洪良浩, 『北征』, 全書 上, p.83. (앞으로 이 작품의 인용은 「北征」의 句數 표시로 대신함.)

閉門讀古書 문을 닫아걸고 古書를 읽으면서
 孤居息往來 외로이 살며 왕래를 끊으니
 飯蔬含聖恩 飯蔬에도 聖恩이 담겼고
 飲流濯塵想 飲流로는 속된 생각을 씻어 버렸네
 放迹山水間 山水間에 발자취는
 芒鞋與藜杖 짚신 신고 청려장 짚고
 爾來再徂秋 그 이후 거듭 가을을 맞으니
 榮辱久兩忘 영욕은 모두 잊은 지 오래일세(23-36)

라고 하여, 실의의 나날을 보낸 세월을 그렸다. 「북정가」에서 “내본디 悠悠者로 百年을 放蕩하려/風塵에 쫓긴막대 곳곳이 집퍼세라”며 한 마디로 언급하고 끝난 필자 자신의 소개부가 여기에서는 장황히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이계와 회은의 신분적 차이에 起因할 것이다. 出仕한 후 줄곧 宦路가 환히 트였던 이계가 갑자기 당한 환난과 庶出로서 正六品 또는 종육품의 武夫인 회은이¹⁶⁾ 임지로 출발하게 될 때 느끼는 감회는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계의 경우는 그것이 좌천을 의미하고, 회은의 경우는 무부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할 변방의 수비를 위한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실의의 날을 보내던 이계가 경흥부사로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그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의의 수는 씻은 듯 사라지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이되고 있다. 이것은 봉건 전제 군주 체제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尺朽終不棄 尺朽라도 끝내 버리지 않고
 寸拔若可獎 조그만 재주라도 마치 권장하듯 하니
 枯骸獲生肌 마른 뼈가 새 살을 얻고

16) 崔康賢, “北征歌小攷”, 語文論集 제 1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7), p. 113.

死灰如復燭 죽은 재에 다시 불길 일듯 하여
 闔門皆驚歎 온 집안이 모두 놀라고
 相對涕淋漓 서로 마주하여 눈물흘렸네(43-48)

欲報恩何由 報恩코자 하지만 무엇으로 하리
 天高而地廣 하늘은 높고 땅은 넓은데
 邊門責亦重 邊門 수비의 책임 역시 무거우니
 恐懼莫稱當 마땅함을 칭하지 못할까 두렵네
 內府出弓矢 內府에서 弓矢를 꺼내주고
 兼衝攝衛將 아울러 섭위장의 직함도 주네
 錫之良馬二 良馬 두 필을 하사하며
 往爲六鎮長 가서 육진의 長이 되라고 하네(69-76)

비록 변세의 목민관으로 외직에 나가게 되기는 했으나, 군왕이 자신
 을 잊지 않고 다시 등용해 준 데 대한 감사와 변방 수비의 책임을 완수
 하지 못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終童昔請纓 終軍은 長纓을 청하였고
 嚴助亦乘障 嚴助 또한 보루에 올랐으니
 軍旅縱未學 軍旅는 비록 못배웠으나
 素志頗倜儻 본래 뜻은 자못 크고 기개가 있었네
 常陋馬少遊 어려서 늘 작은 말과 어울려 놀고
 係戀兒女養 아녀자들이 키우는 것을 연연해 했네(77-82)

비록 이제 자신이 군려에 대한 배움은 없었지만 종군이나 업조의 본
 을 받아, 어려서부터 말과 어울려 놀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책무를 수행
 하겠다는 결의가 새롭다. 회은이 「북정가」에서 무부로 변세에 나가게
 된 데 대해滔滔한 늑혼興이 千里志를 자아내고 있다고 표명한 입장과
 는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풍류삼아 떠나는 회은의 태도와 변방 수비
 의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임지로 출발하는 이제의 입장은 처음부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행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짧은
 머리에 긴 칼을 빗겨차고, 백면서생으로 虎鬚을 께 찢구나”하며 기이한

모습에 대해 스스로 그 不調和性을 可笑하면서도, “남아 사업은 굳건하구나, 내 말은 狂妄함이 아닐세”라고 하여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정」과 「북정가」는 그 출발 동기에 있어서 다같이 왕명을 봉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출발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前者가 실의를 극복하고 변세의 목민관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후자는 산수를 즐기는 자신의 취향에 비추어 변세로 나아감이 오히려 가벼운 흥분과 함께 기대감으로 충만되어 있음을 본다. 뿐만 아니라 권유가사의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단순한 도입부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나, 「북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의미가 강조되었고 필자 자신의 심회와 작오가 논리성을 지니고 있음이 주목된다.

② 路程과 見聞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정」과 「북정가」는 출발 동기와 그 입장에서 이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 路程과 見聞에서 차이가 완연하다.

「북정」에서 노정 소개는 외적 측면보다 내적 감회와 각 지방에 서린 애환, 전설 등에 중점이 주어져 있으나, 「북정가」에서는 외적 경관과 여정 자체를 소개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따라서 두 작품에 나타나는 지명이나 고적의 수에 있어서도 전자가 10여 개에 불과한 데 비해, 후자는 40개에 가깝다. 즉 전자가 지나는 여정의 세세한 소개보다는 특색있는 지역의 향토성 제고에 중점이 주어졌다면, 후자는 여정 자체의 소개에 편중되었다고 할 것이다. 기행문학에 있어서 여정의 소개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정 자체만으로는 문학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두 작품의 경우 우선 외형적으로 보아 전자가 더

17) “短髮橫脩劍 白面帶虎鞞 行裝儘恢奇 顧眄生慷慨 勒石猶至爲 裹革赤不讓 男兒事固爾 我言非狂妄”(83—90)(全書 上, p.84).

견고한 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물론 후자에 전혀 향토성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비중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선 임지로 출발하는 조두의 시술을 보고 그 차이점을 살피는 게 순서일 것 같다.

飄然出東郭 표연히 東郭을 나서니
 意氣何颯爽 의기가 어찌나 샅샅해지는지
 背後終南遠 등뒤로 종남이 멀어지고
 馬前高蓋抗 말 머리엔 높은 고개가 가로막네
 寒颺振落木 찬 회오리바람은 落木을 떨치고
 天宇肅而爽 하늘은 肅爽해지네
 回首望京洛 머리 돌려 서울을 바라보니
 雲日隔莽蒼 구름 속의 해는 푸른 산천을 격하고 있네(91-98)

다라院의 물운먹어 梁文驛에 쉬오고저 / 淮陽이 어드레도 내일흠을 죽자가
 나 / 神田이 저덕었다 魯連海도 갖가울샤 / 雷雲巖은 엇더후어 저대도록 늙닷
 말과(8-11)

이처럼 「북정」은 서울을 떠나는 비장한 감회를 자언에 빗대어 표출하고 있으나 「북정가」는 노정의 단순한 소개에 그치고 있다.

관북지방은 지리적으로 반도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여진족과 계속적인 알력이 있었던 곳이요, 또한 조선 건국의 터전이었던 까닭에 역사적인 고사가 어린 곳이 많고, 또 유배지로서 수많은 증양 관료·문인들의 配所였던 까닭에 이런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북정」 및 「북정가」에서 이에 관계된 부분을 摘出해 보기로 한다.

① 躍馬者弓氏 말을 날뛰게 한 자는 궁예로서
 荒城餘斧壤 기진 성에는 흠을 적은 도끼자국이 남아있네
 亂流因鮮終 亂流者는 진실로 종말을 좋게 마침이 드뭇있고
 驕淫竟不王 驕淫者는 끝내 왕이 되지 못하였네
 眞人遂合三 眞人이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여
 驅除同走虜 구덩이 속으로 몰아내 버렸네(107-112)

- ② 黑石龍興里 흑석 용흥리는
 王業此焉創 왕업이 여기서 일어난 곳
 原廟儼珠旒 原廟에는 구슬 장식된 깃발이 근엄하고
 萬世升醴鬯 만세토록 醴鬯을 올리네
 周圖與漢豐 周나라 圖과 漢나라 豐망이여
 大哉風泱泱 크도다, 바람이 웅웅 부네
 虬虎競騰拏 규룡과 범이 서로 오르길 다투는데
 中多聖人葬 가운데는 성인을 장사지냈네
 元氣積磅礴 元氣가 충만히 쌓였으니
 冀雍可頡頏 冀州·雍州에도 맞설 수 있네(151-160)
- ③ 立馬五國城 五國城에 말울 세우니
 異代起惻愴 異代의 惻愴함이 일어나네
 萬乘作双囚 천자는 죄수가 되고
 金匱恣攫掠 나라는 방자히 유린되었으며
 柔地市梓宮 땅을 찾아 梓宮을 팔고
 狼心劇儻駟 엉큼한 마음으로 거간질이 심했네(213-218)
- ④ 츠즈리라 先王舊蹟 德源으로 드러가니/故老의 傳訕말이 熈微홍도 熈微하
 다/龍興江 너린줄기 黑石里를 둘러시니/周나라 八百基業 海東에 여러실
 사/萬歲橋 늑흔드리 十里에 거의로사(24-28)
- ⑤ 宋나라 運盡홍제 兩青衣 行酒하고/五國城의 주리단말 드렸더니 보완지고/
 江左의 英雄드리 도흔謀策 업듯던지/千萬代에 붓그림을 써서보기 어려웨
 라/路傍에 纍纍하미 皇帝塚이 眞傳인가/荒原衰草 너른들에 金棺玉匣 슬
 프드라(87-92)
- ⑥ 洪武年間 사르실제 諸千戶를 避하사샤/赤島로 드러시니 陶穴이 열세고지/
 至今에 宛然하니 窮困하미 極하실샤/赤池에 主人翁이 客龍을 뜻출時節/黑
 白을 分辨하샤 혼살로 마치시니/血痕이 불거이서 後世에 알니로다(110-
 115)

①은 궁예의 역사적 사실을 들어 治者를 경계하는 내용이고, ②④⑥은 조선 건국과 관계된 역사적 사실 및 赤池의 異事, ③⑤는 五國城과

皇帝塚에 전하는 傳說에 대한 언급이다. 다같이 聖祖의 神異·異跡이나 역사적 교훈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북정」에는 楊士彥·李恒福·金宗西·尹瓘 등의 고사가 전해지는 고적에 대한 언급이 있고, 「북정가」에도 그런 비슷한 언급이 있다. 「북정가」에는 兄弟峯에 대한 전설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계의 「北塞雜謠」중의 「兄弟峯」과 同一한 전설을 전하고 있어 이채롭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 역사적 흔적이 어린 북새의 유적이거나 유물에 대한 언급부분은 그 인식태도나 소개하는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 노정 가운데 전문한 사실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북정」에는

今秋水漂山 금년 가을에 홍수가 산을 넘쳐서
峯壑失舊巖 봉우리나 골짜기나 모두 舊巖을 잃어 버렸네
峽民多流遷 峽민은 流遷함이 많아
提挈或負糶 짐을 손에 들거나 등에다 짚네
停車問鄉邑 수레를 세우고 고향을 물으니
蹙然久倉怛 슬픈 표정으로 오래동안 창황해 하네(127-132)

라고 하여,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流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부분이 있다. 「朔方風謠」중의 「戍卒怨」이나 全書 卷2 「初年拾遺」중의 「流民怨」과 상통하는 대목으로서, 이계의 愛民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점은 이계가 회은에 비해 월등한 상층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艱苦를 인식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중인신분인 위향문인들과 同軌에 머물고 있었음을 뜻한다.¹⁸⁾ 아울러 이러한 의식은 그가 「북새잡요」에서 백성의 진출한 입장을 표명한 작품들에 나타나는 의식과 상통하는 점이다.

또 「삭방풍요」 전반에 다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북정」에는 북새 지방민들의 생활양식이나 풍속에 대한 관심이 농후하여 향토문학적 색

18) 拙稿, “松石園詩社와 그 文學”, 國文學研究 제53집, 서울대대학원, 1981 참조.

채를 질게 먹고 있다.

北方多麗人 북방에는 미인이 많아
 粧服學京樣 粧服은 京樣을 배우네
 滄溟抱其背 滄溟이 그 등을 감싸
 舟楫通饒餉 수운으로 식량을 운반하며
 戎馬埒并代 음마와 같이 대를 잇고
 武力亦斯張 무력 또한 여기서 펼쳐지네
 其俗好騎射 그 풍속은 말타고 활쏘기를 즐기고
 其地利車輛 그 땅에는 수레가 이롭네
 楛矢自肅慎 호목나무 화살은 숙신에서 왔는데
 勁迅過篠簞 날카롭고 빠르기가 대화살을 능가하고
 石砮鉞於鐵 돌 화살촉은 쇠보다 예리하여
 穿札如貫鐵 갑옷 미늘 뚫음이 마치 돈케미 뚫듯하네(175-186)

물론 「북정가」에도 이러한 풍속 소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편적인 전문의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 폭이 넓지를 못하다. 아래의 보기는 開市를 보고 쓴 것으로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본다.

豆滿江 흐른고데 鴻溝를 난화시니
 鰲山을 地界삼아 눈알피 막져잇고
 接賓館에 드는거시 紅抹頭 言侏離라
 장사하논 胡人들은 무슨일노 온단말고
 天龍馬와 羊鼠皮로 牛鹽을 交易하니
 寧塔의 모화두어 別區를 삼았고야
 兩國이 交易하려 和親을 하듯던가(80-86)

그러나 이것 역시 「북새잡요」의 「會寧市」「牛兮」에 비해 의식의 반영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전문된 내용의 외형적인 측면의 개략만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開市의 근처에 깔린 문제의 인식(예컨대, 상호교역에 있어서 조선측의 불이익 따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③ 感懷와 結詞

「북정」과 「북정가」를 상호 비교해 보면 그 結構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자가 그 노정에 있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북새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직선적 구조라고 한다면, 후자는 그 노정이 서울에서 북새로, 북새에서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른바 원점회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정」이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未完의 구조라고 한다면, 「북정가」는 원점에 회귀함으로써 말미암아 더 진행될 수 없는 완결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전자가 경흥부사로 나아가는 여정의 중간 단계에서 쓰여진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북새에서의 책무를 모두 끝낸 다음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된 것이다. 따라서 내용에 있어서도 「북정」은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포부와 희망이 바탕에 깔려 있으나, 「북정가」는 다만 지난 날에 대한 감회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끝나고 만다.

「북정가」는 결국 이 북정에서 깨달은 의미가 하늘이 땅보다 넓다는 사실과 海東은 그 가운데서도 더욱 좁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는 없다.¹⁹⁾ 그리고 다시 서울로 回歸하는 이유도 단 하나

萱堂의 倚闌情을 日夜에 懸望하고
 蘭墻에 서너줄기 晨昏으로 기도하니
 아하야 돌단상한이사라 도라가 위로하리라(128-130)

라고 하여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라고 끝맺고 있는 것이다. 북새 수비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홀가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정」은 그렇지가 않다. 우선 북새에 도착한 후 마음과 눈이 넓어짐을 느끼고서²⁰⁾ 牧民官으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밝힌다. 밤낮으로

19)平生에 아난바는 하늘싸히 고다터니/이제야 서닷과리 하늘이 너르도다/너른하늘 그여운나 四海를 구버보면/싸히현마 너른고지 업슬줄이 아니로되/
 泰山에 오른말이 天下도 격엇느니/좁거나 좁은海東 容納할의 專려업다(119-124)

20) “平生四方志 心目此可壯”(241-2).

직분을 다하여 衰鈍함을 더욱 勉彊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어 狙獷함을 교화하고 백성들의 瘡痒을 어루만져 주려고 한다. 鄙夷함을 버리게 하여 웃사람을 친애할 수 있는 법도를 세우려 하고, 남녀의 직분을 가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邊禁을 밝히고, 평소에 준비하여 창졸간의 재앙에 대비하며, 北關開市에는 약속을 밝혀 交貨에서 誘調을 근절시키려고 하는 등의 자세와 각오를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²¹⁾

또한 북새지방의 황량한 자연 환경과 풍토를 소개한 후, 이러한 속에서도 그곳에 정을 붙이면 그곳 역시 낙토일 수 있음을 노래한다.²²⁾ 고기가 없으면 淡菜로, 무명이 없으면 죽제비나 담비가죽으로, 과일이 없으면 산의 개암이나 상수리로 대신할 수 있으며, 벼슬살이가 수자리 같지만 吏卒이 前廠을 둘러싸고 있는 만큼 북새의 생활도 청신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소박한 심회가 펼쳐진다.²³⁾ 이어서 연결되는 結詞 또한 앞으로 북새 생활을 해 나가고자 하는 호탕한 심회가 반영되어 있다.

玉以琢成器	옥도 쪼아야 그릇이 되고
金符鍊稱綱	쇠도 단련해야 강철이 되네
逍遙以自適	소요 자적하니
胷襟廓蕩蕩	흉금이 열려 호탕해지네
山甫豈永懷	山甫가 어찌 오래 생각하랴
定遠終無恙	定遠은 끝내 탈이 없었네
寄聲報弟兄	아우와 아이에게 알리나니
遠別莫悵惘	멀리 이별하였다고 창망해 하지 마라
天涯隔君親	天涯에 임금, 어머니와 떨어져 있으나

21) “夙夜勤職分 衰鈍益勉彊 披心化狙獷 摩手拊瘡痒 窮藟軫凍餓 深垆達幽枉 不必專煦燠 不必待捶榜 惟能不鄙夷 然後親長上 男兮力稼穡 女也勉繅紡 長楸好格獸 半江莫縱網 平時有素養 倉卒得先倡 關市明約束 交貨絕誘調”(259-274).

22) “山烽疾如期 成鼓靜不響 仁風溢四境 殊俗亦慕嚮 且緩羊公帶 時披王子鞶 爐薰淨印架 塞月明書幌 宵析報平安 睡起朝暉晃”(305-314).

23) “莫云食無肉 淡菜堪作湯 莫云樽無酒 耳牟亦可釀 莫云土無綿 麕貉敵絮績 莫云山無果 健脾多棗橡 莫云地濱海 清朝無炎瘴 莫云風掣瓦 板壁有煖炕 莫云官似成 吏卒環前廠”(315-328).

魂夢徒迢迢 혼은 꿈에서도 그저 두려울 뿐
 聊成出塞曲 애오라지 출새곡을 이루니
 臨風發浩唱 바람을 입하여 호탕히 불러보네(329-340)

말은 바 책무를 완수하고 귀향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느끼는 감상적인 태도가 「북정가」의 結詞에 드러난 작가의 심회라고 한다면, 처음 임지에 도달하여 앞으로 펼쳐질 북새생활에 대한 비장한 각오로 마무리짓는 것이 바로 이 「북정」의 結詞라고 하겠다.

Ⅲ. 「北塞雜謠」의 경우

1. 작품 개관

「北塞雜謠」는 筆寫本 卷1 「歌謠」에 수록된 62수(활자본은 48수)의 漢詩로 이루어져 있다. 필사본에 수록되었던 14수의 詩가 活字로 간행될 때 탈락된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 내용이 문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掛劍」에는 당시 이계가 경흥부사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된 정적에 대한 적개심이 노출되고 있으며,²⁴⁾ 「日之夕」에는 맹수(범)가 산촌에 내려와 가축을 해치는 데도 관아에서는 손도 쓰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²⁵⁾ 「牛兮」에는 큰 소를 데리고 淸市에 가서 겨우 몇 필의 布와 교환해 올 수밖에 없는 開市의 실상이 제시되고 그것은 조선이 弱國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그대로 출간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활자로 간행될 때 탈락되었을 것이다. 활자본에 실리지 않은 작품들이 모두 그

24) “掛劍白頭山石 飲馬黑龍江水 東家腐儒莫笑我 男兒事業當如此 他日驕閭閻 形後角巾騎牛去訪爾”(全書 上, p.21). (상점 인용자)

25) “日之夕矣早閉門 山君來兮可奈何 牛馬猪狗莫出柵 近開山村噉殺多 何處得來良太守 坐見猛獸北渡河”(위의 책, p.23).

26) “牛兮善飼豆 來月將汝淸市赴 持與千斤大牛 換來數疋短布 非不知牛可惜 布無用弱國之故”(위의 책, p.25).

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이유로 말미암아 탈락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歌謠」篇에는 「복새잡요」 외에 다시 「靑丘短曲」이라는 제하에 39수의 시조가 한역된 것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 한역된 시조들은 당시 노래로 불려지던 시조작품을 한역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요」라는 제하에 정리하여 무방하다. 그러나 「복새잡요」가 「가요」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과연 여기에 실린 작품들이 노래로 불려졌을까 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²⁷⁾ 우선 「城津」을 보기로 하자.

城津夜已深 성진의 밤은 이미 깊은데
 渤海風又起 발해의 바람은 또 일어나네
 寒燈明滅不成眠 차가운 등불만 명멸하고 잠 못드는 밤
 故鄉回首三千里 고향을 돌아보니 삼천리 먼 길
 置之勿復思 두어라, 다시는 생각을 말자
 磨雲磨天都已過 마운령, 마천령 이미 다 지났으니
 思之亦奈何 생각하면 무엇하리.²⁸⁾

이 작품은 「복새잡요」 첫머리에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 민요조의 시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를 하여 민요조의 한시를 여류잡점의 수용과 野趣의 감각, 민중의 삶의 현장 표출²⁹⁾이라는 선까지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민요취가 담긴 작품으로 규정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난 나그네가 이향의 풍

27) 조동일은 「복새잡요」에 대하여 “농민생활의 보람과 괴로움을 나타내는 민요를 한시로 가져오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그 중에서도 “〈叱牛〉라는 것은 산골지방에서 밭갈이를 하면서 소에게 하는 말로 이어지는 사실은 민요다운 느낌을 잘 살렸다.”고 했다.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p.242).

한편, 李家源은 「복새잡요」를 樂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徐命膺의 「題朔方風謠」(保晚齋集, 卷 9)에 나오는 말이다. 또 「복새잡요」와 「朔方風謠」가 같은 작품이라 하였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李家源,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1961, p.313).

28) 洪良浩, 全書 上, p.21.

29) 李東獻, 앞의 논문, pp.51~69참조.

물에 낫설어 하면서 밤이 깊어도 뒤척이며 잠못들어 하는 심사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우기 이때의 耳溪는 입신양명의 탄탄한 筥路를 걸다가 번새의 수령인 경흥부사에 제수되어 임지로 가는 길이었다. 험하기 그지없는 마운령, 마친령을 넘어 짐차 변경이 가까와짐에 따라 주어진 처지를 수궁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流露시키고 있는 것이다. 위 시의 마지막 3句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생각은 그 다음에 나오는 「鬼門」「兄弟岩」「少時」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서도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복새잡요」는 전체적으로 보아 경흥을 중심한 북새지방의 풍물과 생활상을 진술한 필치로 노래하고 있다고 일단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변방민의 건강한 생활모습을 담은 민요조의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시조가 북새에 들어와, 향토적인 것과 결부되어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가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白頭山」「幽蘭」과 같은 작품이 존재하고,³⁰⁾ 또 「叱牛」「莫食苗」「耳麥粥」 등의 작품이 있어 민요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한역이 분명한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의 경우, 그것은 전문된 풍물이나 생활상을 治者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은 文面に 숨기고 북새지방 일반 민중의 입장으로 환치시켜 제작하였기 때문에 드러나게 된 우연의 일치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한다.

- a. 七月霜已隕 칠월에 벌써 서리가 내려
百穀秋無實 가을이 되어도 백곡은 거둘 게 없네

30) “白頭山在北斗邊 行行終須到上嶺 今人不肯去攀 但道山高如天”(「白頭山」, 全書 上, p.21), “幽蘭在空谷 白雲在高山 蘭有香兮可撥 雲有影兮可攀 彼美一人獨不見 欲往從之道路艱”(「幽蘭」, 같은 책, p.24). 이 작품들의 바탕이 되었을 時調는 다음과 같다. “泰山이 늙다호되 ㅎ날아예 ㅁ히로다/오르고 또오르면 ㅁ오를理 업진마는/사롬이 제아니오르고 ㅁ흘놈다 ㅎ느니”(정병욱 편, 시조문학사전, 신구문화사, 1974, No.2195), “幽蘭이 在谷호니 自然이 ㄴ디도해/白雲이 在山호니 自然이 ㅁ디도해/이똥에 ㅁ美一人을 더옥디디 ㅁ호애”(陶山十二曲 4, 같은 책, No.1616).

嗟我民何辜 아, 우리 백성들이 무슨 허물이 있어
 遭此天降罰 이같은 하늘의 벌을 받아야 하나
 登山拾橡橡 산에서 개암, 상수리를 줍는다 해도
 能得幾日活 며칠이나 연명할 수 있을까
 坐待南粟航海 남방의 곡식오길 앉아 기다리건만
 來不知到何月 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달에 올지 알 수가 없네.³¹⁾

5. 七月二十七日夜 칠월 스무 이렛날 밤
- 邑人奔告嚴霜下 읍인들이 분주히 찬 서리 내렸음을 고하네
 老夫驚起推窓視 내가 놀라 일어나 창을 열고 보니
 皚如薄雪滿屋瓦 엷은 눈같은 흰 서리가 지붕에 가득하네
 草木盡變色 초목이 모두 색이 변했으니
 況彼田中稼 향차 저 들판의 곡식이라
 黎稷纒垂頭 기장과 피는 겨우 이삭 드리우고
 荏菽未成顆 콩은 알조차 배지 않았건만
 忽如沸湯經浸淹 갑자기 불탕스레 침범하였으니
 宛似萬馬來躡躡 마치 萬馬가 와서 짓밟아 놓은 듯
 東阡南陌成群 발사잇길에 사람들이 베를 지어
 攄擲呌號聲震野 가슴치며 우는 소리 들판을 진동하네
 今年積雨病兩麥 금년에 많은 비로 보리, 밀 걱정하고
 官糶不充猶乞假 관적이 차지 않아 오히려 乞假터니
 水沉根消畦中菜 뿌리에 스민 물로 밭채소 소멸하고
 虫咬蒂落籬上藟 꼭지에 벌레먹어 울타리콩 떨어졌네
 屈指張口待秋成 손뼉아 입벌리고 가을걷이 기다렸는데
 秋之無成其將奈 추수할 게 없으니 장차 어찌할거나
 北關十州大抵同 북관의 10주가 비슷하고
 又聞山郡雪已隨 산골 군에는 눈까지 내렸다네
 扶携老稚欲就食 노인, 꼬마들 대동하고 먹을 것을 찾으려하나
 安往不作溝中餓 어디에 가면 굶어 죽지 않을는지
 況復此土三面隣蘇鞵 하물며 여기는 3면이 말갈과 접하였으니
 有無何處通食貨 어느곳에서 食貨를 통할 수 있나
 登山拾橡入水採菱 산에서 상수리나 물에서 마름을 판다지만
 萬指爭攬不盈把 수많은 손들이 다투어 잡으니 한 줌도 차지를 않네

31) 洪良浩, 「七月霜」, 「北塞雜詠」, 全書 上, p.25.

丙歲飢腹尚未潤 丙申年(1776)에 굶은 창자를 아직 채우지도 못했는데
 天乎何忍薦降禍 “하늘이여, 차마 어찌 이런 재앙을 내리옵니까.”
 北地雖早寒 북방에는 추위가 이르다곤 하지만
 前月是盛夏 바로 지난달이 한여름이었는데
 此時繁霜古未有 이때의 찬 서리는 옛날에도 없었던 일
 懍懍恍揚心欲破 당황하고 근심스러워 마음이 터질 듯하네
 牧實非良民何辜 결실이 좋지 못함이 어찌 백성의 허물이라
 使民轉壑 백성들을 골짜기에 넘어뜨리고
 何以主民社 어찌 民社를 주관하리오
 嗟我群生慎勿怕 “아, 우리 못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聖主愛民同赤子 성주께서 백성 사랑하기를 친자식처럼 하니
 救汝當如拯水火 너희들 구원함을 마치 물, 불 속에서 건지듯 하리로다
 三南之米嶺東粟 삼남지방의 쌀과 영동지방의 조를
 滄海浮來萬斛舸 만석이나 실은 배가 창해에 떠 오리니
 口食有餘農糧足 口食은 물론이요 農糧에도 족하리니
 嗟我群生慎勿怕 아, 우리 못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保爾婦子安田畝 그대의 처자들을 田畝에 편안케 하리로다.”³²⁾

이 두 작품은 모두 1778년 7월에 갑자기 내린 찬 서리로 말미암아 곡식이 枯死하여 큰 흉년이 들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창작된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새잡요」에 실린 a는 그 觀點에 있어 복새에 사는 농민의 입장에서, 天災地妖로 당하게 된 아사지경의 비참함을 한탄하며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를 표현한 절망적인 성격의 시임에 반하여 「삭방풍요」에 실린 b는 목민관의 입장에서, 천재지요를 당하여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남방의 양곡을 운송해서 곧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이다. a는 표현하려는 의미의 전달에 치중되어 단일한 호흡으로 읽어 버릴 수 있는 반면, b는 단일한 호흡으로 읽기 곤란한 복잡한 사실이 나열되어 있다. 즉 b의 의미 단락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것이 분명해진다.

① 칠월에 찬 서리가 내리다.

32) 洪良浩, 「七月霜」, 「朔方風謠」, 같은 책, p. 103.

- ② 제대로 영글지 못한 곡식이 다 말라 죽다.
- ③ 수많은 백성들이 들판에서 안타까와 하다.
- ④ 서리가 내리기 전에도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겹친 재앙이다.
- ⑤ 이와 같은 사정은 북방에 소재한 이웃고을도 마찬가지다.
- ⑥ 생계의 수단이 막연하지만 말갈과 인접한 변방이기 때문에 食貨를 구할 수도 없다.
- ⑦ 야생의 식량을 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 ⑧ 이번 재앙은 2년전(丙申年)의 재앙에 이은 것이기에 더욱 심하다.
- ⑨ 목민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다.
- ⑩ 남방의 곡식을 운송하여 구원할 것이라는 희망을 주다.

이와 같은 b의 순차적 의미 단락 가운데서 a에는 ①②⑦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는데, 그 입장은 목민관인 ⑨의 입장이 아니라 농민인 ③의 시점을 통하여 전체 작품에 일관된 태도가 견지되었다. 따라서 b의 “天乎何忍薦降禍”라는 3인칭 관찰자적 시점의 서술이 a에서는 “嗟我民何辜 遭此天降罰”로 되어 1인칭 경험자적 시점의 서술로 교체됨을 보게 된다. 서술시점의 교체는 필연적으로 결사라고 할 수 있는 b의 ⑩이 a에서는 과연 그렇게 실현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도록 하여, 관에서는 곧 남방의 곡식을 운송하여 백성을 구휼한다고 하지만 속고 살아온 백성의 입장에서 그것을 반신반의하도록 결구시킴으로써 백성의 비참한 생활상과 절망한 심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b에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동원시킨 ④⑤⑥⑧은 결국 a에서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생략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 대신 a에서 언급되지 않은 ④⑤⑥⑧ 가운데서 ④는 따로 떼어져서 「去月雨」에서 형상화되고, ⑥의 상점친 부분은 「耳麥粥」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본다. 이처럼 「복새잡요」의 작품 중에는 「七月霜」과 같이 「삭방풍요」의 작품에서 주요 모티프 하나를 취하여 짝막한 다른 하나의 작품으로 형상화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른 예는 복새에 많이 부는 바람을 두고 읊은 「朔風行」이 「복새잡요」에는 「朔風」

「瑟瑟鳴」으로 형상화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저간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우리는 「북새잡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이것은 이제가 경흥부사에 제수되어 번새로 가는 도중부터 북새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거기서 전문한 풍속, 백성들의 생활상, 번새의 경물, 전설 등을 단순한 필치로 읊은 것이다.

둘째, 그 형식에 일정한 제약이 없고 押韻도 자유롭다.

셋째, 감정 처리는 그 형식에서 絕句나 律詩의 엄격한 자수율의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함에 있어 감정을 노출시키는 감탄사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네째, 표현법에 있어 서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賦의 경우애나 자주 사용되던 대화체를 사용하거나,³³⁾ 한 쪽에 고정되었던 시점을 여러 각도로 변화시킴으로써³⁴⁾ 그 효과를 더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화시³⁵⁾를 통하여 戒世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2. 「北塞雜話」의 내용

① 異鄉人의 心懷

「북새잡요」에서 구현된 작품 세계의 실상을 살펴보고자 할 때, 우선 이 작품은 북새의 풍물이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짙은 향토성을 바탕에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 수령으로서의 작자의 신분울 가능한 한 숨기고,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토착민의 목소리를 빌어 당시 민중의 감정과 그들의 질곡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때로는 민중의 입장을 떠난 자신의 입장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때도 목민관인 수령으로서가 아니라 고향을 떠나 먼

33) 「叱牛」「豆江」「鹿茸」「海棠花」「金山」「借車」「北人」「赤狗皮」「木弓」등 많은 작품에서 대화체가 사용된다.

34) 「赤狗皮」는 북새 일상인의 시점, 「解纜」은 뱃사람의 妻, 「牛兮」「耳麥粥」은 농부의 시집에서 쓴 작품이다.

35) 「天馬」「黃鶴」「海東靑」「北方蚊」등의 작품이 그러하다.

복새에까지 이르게 된 한 이향인으로서의 자세를 지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순연한 인간 심성의 표출이요, 가장 원초적인 육친애에 바탕한 감정인 것이다. 그러나, 필사본에만 전하고 활자본에는 빠진 몇 작품에서³⁶⁾ 그러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신이 지방민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완전한 일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城津」은 고향을 떠나 변새에 이른 나그네의 수심과 望鄉의 정을 표현한 것이요, 「鬼門」「登高」 또한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秋夜長」「雲蒼蒼」에 이르면, 이것은 비장한 심정이 토로되고 꿈 속 세계마저 어지러운 단계가 된다. 더 우기 계절은 가을이어서 여기에는 외로이 변새에 살아가는 한 이향인의 심회가 처절히 묘사된다. 그 중 「추야장」을 보기로 하자.

秋夜一何長 가을밤은 왜 이리 긴가
 夜長晝隨短 밤이 기니 낮은 짧아지네
 遠客無睡度夜難 멀리 온 나그네 잠 없어 밤 지내기 어려운데,
 行人在道愁日晚 행인은 길에 있건만 수심어린 날이 저무네
 不獨宋玉悲秋氣 宋玉만이 秋氣를 슬퍼함이 아니요
 不獨歐陽歎秋聲 歐陽脩만이 秋聲을 탄식함이 아닐세
 如何長安行樂子 장안의 행락자들아
 秋夜猶短欲添更 가을밤이 오히려 짧아 몇 更쯤 더 있었으면 바람텐데 그렇지 않은가³⁷⁾

가을이 깊어짐에 따라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잠 못들고 뒤척이는 정경이 눈에 선하다. 물론 송옥이나 구양수를 이끌어 가을의 분위기

36) 「兄弟岩」의 “武臣守邊猶可矣 文臣有罪方到此”, 「少時」의 “千里辭家赴 秋防 豆滿江”, 「此地」의 “莫愁男兒到此 會看勒石燕然”, 「掛劍」의 “他日麟閣圖 形後 角巾騎牛去訪爾” 등에서 드러나듯 耳溪가 자신의 처지를 의식하고 있음은 정치적 상황과 주변 문제를 돌이켜 보면서 은연중 나타난 착잡한 심경의 반영일 것이다.

37) 洪良浩, 「秋夜長」, 全書 上, p.29.

를 묘사하는 것은 漢詩에 소양이 없는 일상인에게서 찾을 수 없는 수법이지만, 온갖 수식과 雜思가 영결어진 가운데 이향에서 고민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감이 멀리 장안에서 행락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일상인의 사고방식에 다름아니다. 또 시상의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추야의 지리함과 수심으로 말미암아 뒤척이는 모습을 그린 처음의 시상을 마지막에는 자신과 처지가 다른 장안 행락인의 입장으로 전환시켜 秋夜長을 秋夜短으로 반전시키는 것은 일상의 민요와는 달리 의도에 의한 전개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면, 결국 여기에 실린 시들은 그 시점에 있어서 자신을 숨기고 일반인의 눈을 통한 세계의 제시라고 할 수 있지만, 제재를 다루는 수법에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雲蒼蒼」의 시상은 思美人曲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 형식은 楚辭의 七言句 형식³⁸⁾을 취하여 정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음에 연유하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몇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거의가 자신의 입장을 떠나 북방민의 시점을 전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선입견 없는 관찰자의 시점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시들은 어떤 특정인의 안목으로 바라본 세계의 형상화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시점을 “나”라는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일을 말할 때는 주어가 있지만 주인공의 일을 말할 때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청자의 입장에서 “나”라는 주어를 집어 넣을 수 있고, 작품과 청자 사이의 미적 거리가 없이, 청자는 주인공이 당하는 괴로움과 슬픔을 흡사 자기 일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문체가 (서사)민요의 문체적 특징이라고 한다면,³⁹⁾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보아 「북새잡요」의 시들도 민요조의 한시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민

38) 李鍾燦, 漢文學概論(二友出版社, 1981), p.73 참조.

39) 조동일, 서사민요연구(대구: 계명대출판부, 1970), p.118.

요를 한시로 가져온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문체의 시점에 있어서 근사치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② 風俗에 대한 관심

이제의 북새 풍속에 대한 관심은 폭넓게 전개되는데, 수록된 작품을 순차적으로 보면 그것은 창작순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계절이 변화되는 순서에 따라 눈에 보이는 풍속이 소박하게 소개된다.

「北地」 「藝麻」에는 이 지방에서 재배하는 삼(麻)의 용도와 재배 및 織布과정이 소개되고, 「海棠花」에는 오뉴월에 두만강변의 해당화가 결실함에 따라 城中의 아녀자들이 베지어 그 열매를 수확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맛이 시어 먹기는 어려우나 과일이 없는 북방에서 대추·밤을 대신하기 위해 그것을 따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兒既生」은 갓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풍속의 소개이다.

兒既生矣當洗 아기가 났으니 씻어야 하네
 盆中貯來清水 그릇에 맑은 물을 담아 오네
 水雖冷兮兒莫啼 아이야, 물이 차가와도 울지 말아라
 百病消除堅骨理 백병을 없애주고 뼈를 굳게 하는 이치일세
 北方苦寒又多風 북방이란 지독히 춥고 또 바람이 많은 곳
 耐寒耐風從今試 이제부터 내한 내풍을 시험하는 걸.⁴⁰⁾

아이가 태어나 냉수로 처음 목욕시키는 풍습을 소개하며, 그것을 북방의 특이한 풍토와 관련시켜 해석한 것으로서 북방인의 거친 체취를 물씬 풍기는 작품이다. 또 「瑟海鳴」 「雪拍拍」은 바로 이러한 북새의 풍토성이 잘 표현된 예다.

「北人」은 북방인의 好髮 풍속을 소개한 작품이고, 「赤狗皮」는 여름·겨울을 막론하고 사철 개가죽과 소가죽으로 만든 옷·신발을 걸치고 다니는 의복에 관한 풍습, 「木弓」은 아이들이 말달리고 활쏘는 놀이를 소개한 작품이다. 「北俗」은 북방인이 귀신을 좋아해서 남자 무당을 “師”

40) 洪良浩, 「兒既生」, 全書 上, p.22.

라고 지칭하며 받드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으며, 「北人柿」는 북방에는 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풋감을 구워먹으려 하고, 오동나무는 속이 빈 나무(空心木)이라 부른다는 어처구니 없는 풍속을 소개한 작품이다.

「西水羅」는 일상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변세에 많이 설치된 봉화를 두고 원시적인 통신법의 완미함과 거기에 종사하는 군졸들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한 작품이다. 「會寧市」는 변방에서 淸人과 교역하는 會寧開市를 소개한 작품인데, 이때의 변경 무역의 북새에 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의 큰 질곡으로 작용했으나 남쪽지방과의 교통이 불편하여 남방의 物貨가 제대로 운송되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부득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만강변의 北關開市는) 仁祖 15년부터 매년 1차 淸 戶部의 票文을 가진 寧古塔(寧安)·烏喇(吉林) 방면의 만주인과의 교역을 시작하였으니, 이 「會寧開市」는 1년 간격으로 1년은 年 2차(雙關市), 다음 1년은 年 1차로 하고 조선의 수출액은 牛 114頭, 犴 2,600개, 釜 55坐, 鹽 850석으로 정하였고, 만주에서는 羊裘·鹿皮 등 모피와 靑布 등에 그친 것으로 개시의 비용은 조선에서 부담하였던 까닭에 그 고통이 적지 않았다. 뒤에 庫爾喀 방면의 만주인이 회령까지 오기를 싫어하고 慶源에 와서 무역함에 이르러, 인조 24년에 「慶源開市」를 공인하고, 격년으로 牛 50두, 犴 48개, 釜 55坐를 보내고 역시 모피 등을 받아 들였다.⁴¹⁾

이와 같이 북관의 무역은 소국인 조선에서는 대국인 청에 [대해 항상 손해를 보는 입장]이었고, 또 이 변경무역을 통해 조선의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었다든가 아니면 富의 증대에 기여하지도 못하였다.⁴²⁾ 이제 도 이 開市에 대하여

매년 십일이월에는 청인과 交市를 연다. 처음에는 회령에서 이는데 이를 單市라 하고, 間年에는 경원에서도 함께 열어 이를 雙市라 한다. 南北關의 列邑에서 모두 소·가래·해산 등의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청에서는 差額商胡가

41) 震檀學會編, 韓國史〔近世後期篇〕(울유문화사, 1976), p. 115.

42) 위와 같음.

와서 鹿皮·靑布의 두 물건을 가지고 바꾸어 간다. (中略) 瀋陽·烏喇·寧古塔·鄱城·後春의 商胡는 물개와 말을 가져오는데 많으면 천여 필에 이른다. 우리나라 사람은 소를 가지고 교환하는데, 준마인 경우는 소 5,6두를 말 1필과 바꾼다.⁴³⁾

라고 하여, 조선의 상인들이 청인들과 교역함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牛兮」에서 드러나듯,千斤짜리 큰 소를 데려가서 겨우 몇 필의 短布와 교환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開市에서 조선인이 당하는 불이익의 一端이었다. 그러나 「회령시」에서는

會寧開市何繁華 회령개시가 얼마나 번화한지
馬蹄牛角簇如麻 말발굽, 소뿔이 마치 삼밭인 양 백백하네
大牛四五易一馬 큰 소 4,5두로 말 1필과 바꾸는데
紫騮青驄白鼻驕 자류·청총·백비와를
揚鞭作隊驅向磨天嶺 채찍으로 대오지어 마친령을 넘어서는
盡歸長安卿相家 모두 장안의 卿相家로 돌아가누나.⁴⁴⁾

라고 하여, 이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開市에서 교환된 말이 모두 서울의 재상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북새지방에서 발견되는 풍속을 이계는 당시 민중의 입장에서 소담하게 소개함으로써 그의 풍속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③ 북방인 생활상의 반영

변새인의 생활이란 열악한 풍토와 빈약한 토산물로 말미암아 남방인의 생활에 비해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다. 「북새잡요」에도 이러한 생활상이 반영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측면에서 실의와 체념이 강조되는 작품군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43) “每歲十一月與清人交市 初設於會寧 謂之單市 間年並設於慶源 謂之雙市 南北關列邑 皆以牛鬘鹽海蔘等物入市 清差領商胡而來 以鹿皮靑布二物交換 (中略) 瀋陽烏喇寧古塔鄱城後春胡商 持健馬來 多至千餘匹 我人以牛易之 駿者或以五六頭換一匹”(耳溪外集 卷 12, 全書 下, p.1,165).

44) 洪良浩, 「會寧市」, 全書 上, p.25.

점원을 드러낸 작품군이다.

우선 전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②항에서도 언급된 「藝麻」를 보면,

可惜盡與南商充官債 모조리 南方商人에게 팔아 官債에 충당하고
身著羸裙不掩脚 몸에 걸친 거친 치마는 다리도 못가리니 애석하구나⁴⁵⁾

라고 하여, 열심히 삼농사 지어 짠 베를 자신들의 몸에는 걸치지도 못하고 남방의 상인에게 모조리 팔아 관채를 갚아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반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이 제도적 장치에 의한 생활의 질곡을 나타내고 있다면, 「去月雨」 「七月霜」 「曉起」 등은 天候에 의한 백성의 비참한 生活相을 반영하고 있다. 「去月雨」는 「七月霜」⁴⁶⁾의 “今年積雨病兩麥”의今年에 많이 내린 비에 대한 구체적 실상을 제시하여 비로 인한 백성의 고난을 그린 작품이고, 「七月霜」은 칠월에 내린 찬 서리 때문에 곡식이 枯死하여 백성들이 굶주리는 실상을 제시한 작품이다. 「曉起」는 폭설로 인해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의 표현이다.

曉起排戶視 새벽에 일어나 문열고 보니
夜來雪數丈 밤에 몇 丈이나 눈이 내렸네
門逕高沒頂 문앞 길은 정수리까지 덮여
隣里塞來往 이웃 마을과 내왕이 막혔네
引索通汲路 줄을 끌어 汲路를 통하니
穴裏人相呼 구멍 속에서 서로 부르는 소리
縱然得水來 설령 물은 얻을 수 있다지만
其奈薪米無 뉘나무와 먹을 게 없으니 어떻게 하리⁴⁷⁾

복새의 특수한 풍토 속에서 일어나는 겨울 폭설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 겪어야 되는 백성들의 고통을 간과하지 않는 이체의 안목이 이때에 비로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그가

45) 洪良浩, 「藝麻」, 全書 上, p.22.

46) 「朔方風謠」의 작품을 지칭함. (註 32).

47) 洪良浩, 「曉起」, 全書 上, p.26.

약관이었던 1743년에 쓴 「流民怨」에서 愛民詩의 좋은 예를 보여준 것으로 보아, 그가 비록 양반 관료의 전형으로서 일생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의식의 저변에는 일반 백성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식이 굳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북새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이런 의식을 견지했음은 「가요」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북새잡요」뿐만 아니라, 「朔方風謠」 중의 「戍卒怨」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수졸원」은 구월부터 이듬해 해빙기에 이르기까지 혹한과 맹수의 위협 속에서도 두만강변을 防戍하는 군졸들의 고난상을 그린 작품인데, 천연의 열악한 조건 이외에도 군대라는 계급사회의 규율에 의한 巡點將校의 불시 점검이라는 인위적 조건에 의해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踐更의 희망조차 바랄 수 없는 戍자리 생활을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耳麥粥」 또한 이와 동계의 것으로서, 흉년으로 말미암아 귀보리죽과 보리가루로도 연명할 수 없는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농사짓는 사람의 곤궁한 생활은 장사하는 상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一葉舟」는 孔州에서 원산을 왕래하는 상인이 만경창파에 일엽편주를 타고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인데, 대화체를 사용하여 그 표현의 강도를 더해 준다. “그대는 어이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가? (爾獨何不惜性命)” “의식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오(衣食驅人不自由)”라는 말에서 목숨까지 돌보지 않고 생계의 방도를 찾고자 애쓰는 북새인의 곤궁한 生活相이 실감된다. 그런가 하면 「海賈」는 풍파를 겁낸 뱃상인이 배를 팔고 말을 사서 장사를 해 보지만 그것도 용이하지 못해, 결국 고향에 돌아가 굶더라도 농사를 짓는 게 낫다는 내용의 시다. 이처럼 「북새잡요」의 시 속에는 농사를 지어도,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육로로 장사를 하여도 다같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북새인의 생활상이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솔직히 드러난다.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실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 말은바 자

신의 직분을 다하고자 하는 작품군이 있다. 「松魚」는 그물로 송어를 잡으면 먼저 公堂을 생각하는 어부를, 「鹿茸」은 진상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으면 녹용을 구하기 위해 맹수도 겁내지 않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포수를, 「借車」는 관부에 納倉하는 날이면 때맞추어 양곡을 실어 가고자 서두르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애쓰는 백성들의 모습이 진강하게 부각된다.

「日之夕」은 호랑이가 가축을 잡아가는 우환을 당해서 좋은 태수가 나와 虎患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백성의 염원이요, 「茂山」은 六鎭에서 약을 사려면 三水까지 500리 길을 가야만 하는데, 그 길이 험하기 그지 없기 때문에 厚州府를 다시 설치해서 길을 닦아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이다.

또한 북새지방은 지리적으로 여진과 접해져 있고, 역사적으로 계속적인 투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민들의 민족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豆江」은 해빙이 되어 두만강에서 고기를 잡더라도 강의 반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越境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작품이요, 「孔州田」은 공주지방의 전답이 두만강의 침식으로 매년 깎여 들어가 우리 국토가 축소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낸 작품이다. 「湖山」은 湖山이 우리 땅이었다면 공주 땅은 명승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尹璣·金宗西에 의해 懸海까지 우리의 땅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읊은 것이요, 「天鷄」는 해뜨는 빛이 전세계(八表)에 밝은 것은 우리 동방에서부터라는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우리의 국토와 민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담고 있다.

「叱牛」는 「북새잡요」의 작품들 중에서 논자들에게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시다.⁴⁸⁾ 건강한 생활인의 노동 현장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게 보

48) 李東歡, 앞의 논문, p.61 및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지식산업사, 1984), p.242 참조.

사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야, 겁내어 물러서지 말고 힘을 내라／너는 혈떡이고 나는 땀나지만 어떻게 하랴／지금 같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말리”(牛兮努力莫退遒 爾喘我汗亦奈何 今也不耕時不及)⁴⁹⁾라는 귀절에서 우리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농부의 알뜰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解纜」은 고기잡이 가는 어부의 아내 입장에서 멀어져 가는 노젓는 소리를 들으며, 가족을 위해 험한 바다로 떠나는 남편을 염려하는 애절한 마음을 묘사한 작품이다.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인의 뒷면에 숨겨진 아내의 살포한 정을 느끼게 해 준다.

「赤池」는 赤池와 赤島 주변에서 고기잡고 나무해서 살아가는 것이 선왕의 유덕이라고 찬양하며 주어진 어려운 상황 아래서도 그것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진실보하게 되면, 현실을 긍정하는 속에 희망을 첨가하여 현재의 삶을 태평성세로 규정하고 그것을 구가하는 태평가류로 발전하게 된다. 「金山」이 바로 이러한 예인데, 여기에는 평화로운 산천의 풍경 속에 농부들의 노래소리가 들려 오고 소를 모는 목동들의 피리소리가 낭자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변방인들과 百年太平을 누리보자는 기원이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제는 변세지방의 열악한 풍토와 빈약한 산물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북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의식의 한 저변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의 이중적인 면모를 아울러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④ 現實世界에 대한 인식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제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처해진 환경이 어렵고 열악할수록 당위에 대한 요구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白頭山」은 바로 인간이 자신이 할 바를 하지 않는 사회풍조

49) 洪良浩, 「叱牛」, 全書 上, p.21.

속의 그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 작품은 「幽蘭」과 함께 시조에서 모티프를 취하여 이루어진 작품으로서, 원래의 시조가 泰山이라는 중국의 산을 대상으로 제시하여 인간이 제 할 일을 다하지 않고 다른 구실만 찾는다는 일반적 교훈임에 반해,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두만강변의 백두산으로 한정하여 북새인들이 당위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구체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경각심을 북돋우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지방의 통치자인 지방관원에 대한 백성들의 의식향방이 어떤 쪽으로 향하는가에 대한 성찰로 발전하게 된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관원은 치자요, 자신들은 피치자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의 상호대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그 표현법에 있어 자연물에 假托하거나 寓話的인 표현을 빌려 의식을 그 대상물에 가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그 특징으로 지적될 만하다. 우선 「惡木」에서는 관원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惡木不可蔭 못생긴 나무는 그늘을 지울 수 없고
 貧泉不可飲 메마른 샘은 마실 수 없네
 羊腸不可過 꼬불꼬불한 길은 지날 수 없고
 虎鬚不可攬 호랑이 수염은 잡을 수 없네⁵⁰⁾

惡木·貧泉·羊腸(貪官)은 남에게 혜택을 베풀 수 없고, 虎鬚(官의 권위)는 대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관원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善政)에 대한 경계와 함에 대한 두려움이 간단한 비유로 具現된 시다. 이것이 좀더 구체화되면 「海東靑」「烏揭峯」과 같은 작품이 된다. 「해동청」은 관원을 “밝은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가을 하늘 천리물 횡행하는”(金眸玉爪橫秋空千里) 海東靑으로, 백성을 “온전한 형상을 찾지 못하는 꿩이나 토끼”(雉兔無全形)로 비유하여 관원이 백성을 수탈하는

50) 洪良浩, 「惡木」, 全書 上, p.24.

당시 사회현상에 대한 고발을 담고 있는 작품이요, 「오갈암」은 長鯨(貪官)이 설치하는 곳에 蛟龍(백성)은 도망가는 실상을 소개하고, 長鯨의 형체(勢道)가 아무리 크더라도 배(民財)를 삼키지는 말라는 경계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그럴 때는 公事를 맡은 큰 낚시꾼이 있어서 정치하게 된다는 것이다(何所獨無任公大釣手). 이처럼 이 작품들은 관원은 청렴해야 한다는 당위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인 司正 기구에 의해 반드시 정치되리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가 하면 「黃鵠」은 莊子 「逍遙遊」의 鵬새와 蜩의 이야기를 끌어와 천하 만물의 지위, 인간 지위의 불평등을 제고시키는데, 다만 장자에서의 鵬새가 여기에서는 黃鵠으로 탈바꿈한 굴절을 통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재로의 변모가 눈에 띄일 뿐이다. “아, 인간 심성의 賢愚間에 어찌 이것이 두 새(黃鵠·鵠鵠)뿐이겠느냐?”(嗟乎人性賢愚間 奚直二鳥雷)라고 하여 우화적인 수법에 가탁하여 시를 쓰고 있으나,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귀결됨을 볼 수 있다.

「北方蚊」도 역시 같은 범주에 속하지만 그 강도는 앞의 작품들에 비해 훨씬 더 강하다.

北方蚊蚋大如蜂	북방의 모기는 벌만큼이나 커서
尖觜吮血毒於鋒	뾰족부리로 피를 빨면 칼날보다 더 독하네
嗟我北人肌肉薄	아, 우리 북방인들은 살가죽이 얇은데
爾獨何心來相虐	너 홀로 무슨 마음으로 와서 괴롭히느냐
搖吻鼓翼作雷聲	주둥이 흔들며 앵앵대는 날개 뇌성을 일으켜
使我不得安眠食	내가 편안한 眠食을 할 수 없게 하네
雖然不見衣冠族	그러나, 의관인은 족속들 못보았는가
亦多凌民膏血者	백성의 고혈을 빼앗는 자 또한 많으니
於汝微物烏足貴	너같은 미물을 어찌 나무랄 수 있으리 ⁵¹⁾

모기를 탐관오리에 비유하여, 수다한 탐관오리들의 탐학에 비하면 모기가 사람의 피빨는 정도로는 나무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혈을 관원

51) 洪良浩, 「北方蚊」, 全書 上, p.25.

들에게 빨리 본 백성의 입장에서 모기의吮血이야 귀찮을 뿐이지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 작품이다.

「莫食苗」는 굶주려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절실한 심정을 읊고 있다. 여기에서는 참새가 곡식의 싹을 뜯어 먹는 상황을 설정하고 새가 싹을 먹으면 “나”는 굶을 수밖에 없음을 독백하고 있다. 다음에는 새를 쫓는 아이에게 하는 대화인데, “저런 미물조차 역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으니, 망령되이 죽이는 것을 삼가고 다만 놀래켜 날아가게만 하라”(然彼微物亦求食 慎勿妄殺但驚飛)는 말에서 우리는 농사의 풍흉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탐관의 수탈에 의해서까지 굶주려 살아온 백성들이 비참한 생활에 대한 절실한 체험을 확산시켜 농사를 해치는 미물(참새)까지를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작품들 이외에 또 다른 작품군이 있으니, 「白玉」「天馬」「疾雷」가 그것이다. 「백옥」은 백옥이 곤륜산에 있을 때는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것을 갈고 쪼아 일단 빛을 발하게 되면 천하가 서로 차지하려 한다는 내용이고, 「천마」는 漠北에 천마가 나서 길 위를 달려가도 伯樂같은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돌보아 주지 않음으로써 절뚝발이 당나귀에게조차 조롱받는 꿈뜬 말이 된다는 내용이고, 「질뢰」는 왕도와 패도, 義와 利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즉 이목에 총명함이 없는 사람은 다만 한 가닥 靈覺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결국 아무리 빼어난 바탕을 타고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불민한 재주를 지녔다 하더라도 刻苦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의 확인이다.

「복새잡요」의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모두 이제 자신은 文面 속으로 몸을 숨기고, 겉으로 드러난 작품의 시점은 北塞에 사는 일반민중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여기 드러난 관점이 곧 이제 자신의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가 자신을 은폐시키고 백성의 입장에

서 사회의 비리와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의 확고한 의식이 아니었음은 다음 작품을 보아 알 수 있다.

靑山爲屏風 靑山은 병풍이 되고
 白雲作藩籬 白雲은 울타리 되네
 白雲有卷舒 白雲은 모였다 흩어지나
 靑山無轉移 靑山은 움직임이 없네
 雲山本異性 백운과 청산은 본래 다른 성질의 것인데
 何事長相隨 무슨 일로 오래도록 서로 따르는가
 我亦無心者 나 또한 무심한 사람으로
 還與雲山期 돌이켜 백운·청산과 더불어 기약하노라. 2)

이 시는 「靑山」의 전문이다. 靑山과 白雲이 본래 다른 성질의 것인데 오랜 기간 동안 흩어졌다 모였다 하는 백운에 쌓여 청산은 곳곳이 서 있음을 노래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청산을 백성으로, 백운을 관으로 볼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백성은 청산처럼 여럿이 서 있으나 관(리)은 백운처럼 卷舒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관은 청산처럼 우뚝 서 있으나, 민은 관을 중심으로 卷舒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靑山과 白雲이 같은 성질의 것은 더욱 아니다. 서로 어울리다 흩어질 수도 있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수도 있다. 조화와 부조화를 거듭하는 두 실체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耳溪 洪良浩의 의식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다. “我亦無心者 還與雲山期”라는 말에서 “我”는 명백히 이제 자신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백운(관/민)과 청산(민/관)으로 더불어 기약한다는 말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나타낸다. 출신신분인 양반과 현재신분인 관료라는 지배자로서의 상층지향의 입장과 그 의식의 지향에 있어서 백성의 시각을 통한 民意의 表出이라는 하층지향의 입장이 상호대립된 양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52) 洪良浩, 「靑山」, 全書 上, p.24.

따라서 우리는 이계가 「복새잡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떠난 백성의 질곡과 그들의 의식을 표현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 신분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일면의 의식을 반영한 양면적 성격을 지녔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朔方風謠」와 「北塞雜謠」를 중심으로 耳溪 洪良浩의 北塞文學에 대한 몇 가지 면모를 살펴 보았다. 복새인이 아닌 이계의 입장에서 향토성이 갖든 특정지방의 풍물과 생활상을 담은 문학작품을 창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고, 그 자체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계가 도달한 문학적 성과는 당시의 漢詩文學에서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맺음말로 삼고자 한다.

「작방풍요」와 「복새잡요」는 다같이 이계가 경흥부사에 제수된 1777년 겨울부터 고향에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작된 시편으로서 복새지방의 풍속과 생활환경, 백성들의 생활양식, 지방의 전설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그것을 서술하는 입장에 있어서, 「작방풍요」에는 이계 자신의 입장이 크게 반영되고 있으나, 「복새잡요」에는 자신의 입장은 가능하면 문면 뒤로 숨기고 그 지방 백성의 시각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의도적인 서술시점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이 점은 같은 제목의 작품인 「七月霜」을 대비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북정」과 「북정가」는 작자가 다르지만, 동시대인으로 같은 복새지방에 奉行王命하여 제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상호 대비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즉 그 동기에 있어 후자는 단순한 도입부 역할에 그치고 있으나 전자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에 대한

반성을 수반시킴으로써 도입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노정과 견문에 있어서도 후자가 외적 경관과 여정 자체의 소개에 치우치고 있으나, 전자는 외적 경관을 보고 느낀 내적 감회가 드러나고 지나는 지방의 고유한 전설과 백성들의 삶의 애환, 생활양식과 풍속의 소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홍수로 인한 流民을 만나서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도 한다.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도 전자는 직선적 구조를 취하여 앞으로 펼쳐질 북새생활에 대한 포부와 희망이 넘치고 있으나, 후자는 서울→북새→서울로 다시 회귀하는 원점회귀의 구조를 통하여 감상적인 내용으로 흐르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물론 두 작품의 작자들이 처한 환경과 그들의 의식의 차이에 기인하겠지만, 그들이 선택한 문학양식, 즉 한시와 가사라는 장르의 고유한 속성의 차이에도 한 원인이 자리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북새잡요」에서 이제는 북새의 풍물과 생활상을 표현하면서, 하나의 단일한 모티프를 한 작품으로 형상화시키면서 서술시점을 교체하거나 우회적인 기법을 통해 자신을 숨기고 북새인의 입장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나, 「靑山」에서 보여지듯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 参 考 文 献 >

〔資料〕

- 국어국문학회편, 原文歌辭選(서울:大提閣, 1976).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Ⅵ(서울:민족문화추진회, 1978).
 李滄, 適宜(국립도서관 소장본).
 鄭炳昱編, 時調文學事典(서울:新炳文化社, 1974).
 洪良浩, 耳溪外集(규장각 소장본).
 _____, 耳溪集(규장각 소장본).
 _____, 耳溪洪良浩全書 上·下(서울:民族文化社, 影印本, 1982).

〔論著〕

成範重, “松石園詩社와 그 文學”, 國文學研究 제53집(서울대대학원, 1981).

李家源, 韓國漢文學史(서울: 民衆書館, 1961).

李東歡, “朝鮮後期 漢詩에 있어서 民謠趣向의 擡頭”, 韓國漢文學研究 제3-4집(서울: 韓國漢文學研究會, 1979).

李鍾燦, 漢文學概論(서울: 二友出版社, 1981).

趙東一, 敘事民謠研究(대구: 계명대출판부, 1970).

_____, 한국문학통사 3(서울: 知識產業社, 1984).

震檀學會編, 韓國史[近世後期篇] (서울: 乙酉文化社, 1976).

崔康賢, “北征歌小攷”, 語文論集 제 1 집(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_____, 韓國紀行文學研究(서울: 一志社, 1982).